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대학신문 평가 학생독자에 맡겨야

운영체계 재편의도에 분노

평소 대학주보를 자주 보는 학생이다. 대학주보는 학내의 곳곳 소식을 앉아서 볼수있게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 신문을 자주 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유일한 매체이기 때문으로 대학주보를 매주 읽는 것은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다시피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가 그렇게 대학주보를 부담감 없이 읽을 수 있는 토대가 존재한다. 바로 그 신문을 만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또래의, 나와 같은 수준과 공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학부들이란 점인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3일자 한계레신문에 연세대 학보인(연세춘추)가 학보사 운영체계를 둘싼 마찰로 발행중단된 사태가 게재되었다.

벌써 이전부터 대학신문의 운영체계는 논란이 된적이 있었다. 대학신문 제작진들을 대학원생으로 교체하려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나로서는 도무지 받아 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학교의 주체 학부생이라 함은 그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 터이다.

대학신문을 학부생들의 영역에서 빼앗으려는 계획은 그 다수의 학부생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학부생의 공감대를 말소시키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대학신문이 운영체제개편을 요구하는 해당 학교측에서 생각하듯 학문적 질은 고려하지 않고 사회현상에 눈을 많이 돌린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왜 학생들에게 그것을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는가? 다수의 학부독자들이 신문의 잘못을 충고해주고 비판해 주는 우리의 공간을 배앗는가?

운영체제를 개편하려는 해당학교측은 원하는 학술지나 홍보지를 다른 식으로 마련하라. 그리고 우리의 대학신문은 이번 기회로 좀 더 객관적인 논리로 모든 사안을 가늠 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새진로 모색에도 노력했으면 한다.

박 정 금
〈국문·3〉

국민당 광고보복조치에 경악

자본의 언론침해 용납 못해

정주영씨의 국민당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다.

현대그룹은 서울신문의 국민당 비판기사에 보복, 계열사의 광고게재를 전면중단하여 서울신문사측에서 기사를 통해 언론자유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국민당은 엄청나게 이익이 높은 광고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철저한 보호막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어 버렸다.

국민당은 제14대 총선에 대비, 매일 일간지 1면에 자신의 정책광고를 실어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있다.

한번에 4억원정도가 든다는 일간지광고에서 국민당은 아파트값 절반인하, 금융실명제등 경제정의 실천등 많은 공약으로 국민의 눈을 쏠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일간지들의 수입원인 광고를 통해 자신의 비판세력들을 목죄어 가고 있다.

정주영씨의 국민당 창당과 관련해 무수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인이 정치가 웬 말이냐, 정주영씨가 현대의 경제력을 등에 업고 정치를 매매하려 한다는 등 국민당 창당에는 언론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이었다.

정주영씨의 국민당이 진정 이 나라의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해주리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주영씨가 그간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행한 업적(?)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으로 일관하였으며 엄청난 부의 축적을 통해 정치 깊숙히 개입후 마음이 돌아서자 갖가지 폭로성 발언을 하는등 그의 기회주의적, 부르조아적 특성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뒷받침해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주영씨에게는 이제 정치고 경제고 간에 강에 가서 낚시나 즐기며 편안한 노년생활을 보낼것을 권유하고 싶을 따름이다.

최 명 주
〈농학·3〉

'교육법' 개정 시급

교원의 안정적 지위 보장 필요

며칠전 서울 혜성여상의 11명의 선생님들이 해직됐다. 그 이유는 조만간 폐교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지않고 교원을 감원했던 것이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가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간다면 학교 마음대로 필요한데로 해직될 위험이 있는 그 자리를 적극 말려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분노는 그 사실은 정당화시키려 하려는 그 행위다. 교육관계법 운운하며 애써 교육법을 뜯어맞추는 그 행세가 가관이다.

교원은 공무원법에 의거, 1천5백여명의 전교조 교사를 해임시킨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어느때는 공무원이라고 해직, 어느 때는 대책없으니 해직, 도무지 교원의 위치가 왜 이렇게 불안정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교육법'을 자의대로 해석하며 교원의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지금 정권은 정형화되고 순종적인 교원만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싶다.

김 보 균
〈전자·3〉

신세대에게의 권고

신세대는 무서우리만치 합리적이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면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제 막 제도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한 고등교육의 장에 들어온 우리의 신입생들을 볼때도 그러한 느낌이 지배적이다.

그들은 자율성을 십분 활용하여 공동의식의 함양과 동세대적인 문화접촉, 긍 모든 것을 학과 공부와 마찬가지로 비중과 가치를 두어야 한다.

신세대들에게 넓은 시야와 동아리 의식을, 그리고 동참을 권고하고 싶다.

권 혁 정
〈농학·3〉

습 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조용식(국문·90) ▲이미영(영문·91) ▲김종준(사학·82) ▲고재경(법학·87) ▲이승재(법학·90) ▲김상철(법학·87) ▲김기철(법학·90) ▲손성호(정외·88) ▲현광찬(정외·90) ▲이종규(정외·85) ▲홍승민(경제·90) ▲조병규(경제·85) ▲신재진(경영·90) ▲황경곤(무역·90) ▲정윤영(무역·85) ▲강한신(무역·90) ▲문동신(회계·85) ▲신학도(회계·87) ▲문병희(경영·88) ▲김은석(치의예·90)

【수원캠퍼스】◆학생증=▲오창석(영문·90) ▲장일섭(중문·89) ▲김민정(서반어·90) ▲최승원(서반아·83) ▲유재헌(경영·91) ▲정남용(경영·86) ▲손영일(사회·91) ▲강두식(경영·85) ▲신종명(경영·84) ▲이진하(무역·85) ▲고용준(무역·85) ▲김현우(무역·88) ▲김유재(경영·91) ▲이용구(경영·90) ▲이창준(물리·91) ▲엄주호(수학·88) ▲이현재(유전·88) ▲최승준(기계공·89) ▲이진희(건축공·87) ▲최익준(화학공·85) ▲지형두(건축공·87) ▲윤상헌(토목공·85) ▲김영기(토목공·86) ▲권성훈(건축공·89) ▲이성원(전자공·88) ▲박원영(전자계산공·90) ▲정은주(전자계산공·91) ▲김양오(기계공·89) ▲최동렬(원예·85) ▲차기자(요공·87) ▲김정희(요공·85) ▲최종민(요공·87) ▲한경자(요공·87) ▲김상윤(임학·86) ▲안현태(농학·88) ▲김영준(조경·85) ▲김정태(체육·87) ▲최은진(체육·91) ▲최현중(체육·88) ▲김진희(체육·91) ◆ 도서대출증=▲강재현(조경·86) ▲윤귀선(기계공·86) ▲주동웅(행정·88) ▲강혜영(회계·90) ▲성영진(원자력공·90) ▲고훈성(수학·85) ▲정현채(수학·86) ▲김동옥(유전공·85) ◆주민등록증=▲박선희 ▲오치헌(행정·86) ◆지갑=▲김준규(화학·90) ▲김수정((건축·90) ▲이범준(전자공·87) ▲한정현(화공·84) ▲오택근(임학·88) ◆운전면허증 = ▲김진수

분 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수원캠퍼스】◆송은주(중문·91)=지난 3월4일 외대 Calvin Klein긴지갑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박인선(국문·2) ▲김현(국문·2) ▲정수호(국문·3) ▲하창연(영문·2)▲조은주(지리·3) ▲김도영(물리·1) ▲송영신(철학·3) ▲윤석자(수학·3) ▲정재훈(정외·3) ▲정진탁(경영·1) ▲김강희(경영) ▲채효정(정외·4) ▲김철모(경영·2) ▲이중희(경영·2) ▲조승태(경영·4) ▲신철(무역·2) ▲조문식(신방·3) ▲박재환(신방·2) ▲김수연(가관·2) ▲홍미경(가관·2) ▲오향순(식영) ▲송명희(식영) ▲문주영(영교·2) ▲용성주(미교·3) ▲엄우성(의본·2) ▲이미화(간호·2) ▲박동범(한의본·3) ▲김기석(한의본·2) ▲강백면(치의본·2) ▲김수진(치의본·4) ▲김현희(기악·3) ▲최윤희(기악·3) ▲서동은(기악·1) ▲박승진(기악·1) ▲김수향(성악·3) ▲김영진(성악·1) ▲김지영(무용·1) ▲이승희(무용·4)

【수원캠퍼스】▲정희경(불문·2) ▲염종식(행정·4) ▲소용신(환경·3) ▲정도철(기계·3) ▲이종호(조경·3)

동문모임

광남고 동문회

【서울캠퍼스】▲광남고=오는 10일 오후5시 아마데우스 ▲이대부고=오는 13일 오후6시 독수리다방 ▲대신고=오는 13일 오후6시 경희호프 ▲화곡고=오는 12일 오후6시 중앙도서관 앞 ▲여수 향우회=오는 13일 오후 6시 교향불갈비

【수원캠퍼스】▲서라벌=오는 13일 오후 6시 외대앞 광장 ▲경문=오는 11일 공대식당 ▲전주고·여고 =오는 10일 오후 5시반 공대 휴게실 ▲내성·중앙여고=오는 13일 오후 5시반 공대식당 ▲파주향우회=오는 17일 오후 5시 공대 휴게실 ▲에스페란토 정기총회및 개강모임=오늘 오후 5시반 공대257호

컴퓨터연구회 회원 모집

서울캠퍼스 컴퓨터 연구회 com·com은 92학번을 대상으로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늘부터 12일까지이며 오는 13일 학생회관 4층 동아리방에서 면접을 본후 신입회원을 최종 결정한다.

서울 응원단원 모집

서울캠퍼스 응원단은 오는 12일까지 학생회관 7층 응원단실에서 91,92학번을 대상으로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신갈야학 신임교사 모집

신갈 야학이 신임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환영하며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수업은 중·고등 검정고시와 시사문제등이며 미술이나 문예등에관한 특별활동도 다루게 된다. 〈문의:(0331)8-5566〉

라이언스 야구부원 모집

수원캠퍼스 라이언스대학 아마추어 야구부는 오는 31일까지 92학번 남녀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모집한다. (체과대 배구장 위 440호에서)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환영한다.

수원 응원단 음악부원 모집

수원캠퍼스 경희응원단은 오는12일까지 학생회관309호 응원단실에서 무용부문과 그룹 공감대의 보컬과 기타, 베이스, 드럼등의 음악부문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체대 체육학과 장학생 선발 10일까지 체대학생 대상

체육대학 체육학과 사무실에서 92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을 오는 10일까지 체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근로장학생은 전학기 성적, 가정형편, 학교생활 순으로 5명정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체조실, 수영장, 기재실, 골프장, 운동장 정리등 매일 2시간의 작업으로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사립대학에 국고보조금 지원 절실

— 매년 성과없이 진행되는 등록금협상을 보며

새학기가 되었다. 그러나, 재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학내에서는 등록금협상으로 분주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먼발치서 바라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시기적인 조바심으로 마음이 안정돼 있지 못하다. 그 협상이 우리 자신과 관련된 당면의 문제이지만 목만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

학내의 등록금협상은 몇차례씩 거쳐야한다. 학교측과 학생대표가 밀고 당기고 서로의 감정문제까지 개입되어 결렬이 수차례다. 학교측은 각종 인건비 상승과 예산을 들어 일방 인상율을 적용하고, 학생대표측에서는 그 예산의 헛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해마다 그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에서는 이제 '승리냐, 패배냐, 적당한 친선이냐'등의 계산도 없는 듯하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율을 한편에서는 얼만큼 낮춰주느냐 다른 한편에서는 더많이 인상율을 줄일까 부심하고 있는 터 이제 우리는 학기마다 쟁점이 되는 등록금협상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더 큰 안목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사립대학 예산중 1%를 약간 넘는 거대한(?) 국고보조금의 의미를 확실히 되새겨야한다. 자금의 돌파구는 아직까지는 국가의 교육재정을 확보가 가장 유력한 재력이다. 그것이 부과하는 의미는 국·사립의 막대한 차별을 보상받는 것과 함께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의 엄연한 임무행사에 차질이 없게 하는 과정이기도 한것이다.

신 은 선
〈사회·3〉

기로의

3월주제 '신 입 생'

대학, 망각 그리고 극복

하루가 다르게 봄기운을 느끼는 3월에 우리 경희교정에 약간 어색해보이면서 뭔가 신선함을 느끼게하는 신입생을 보게되니 더없이 반가운 마음이 든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그러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재목들… 이런 저런 생각에 그들의 젊은 생명력이 새삼 부러워진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지금 재학생이나 나 또한 모두 저 좋은 시절을 지내지 않았던가?

그러면 지금 이 어수선한 대학은 저 우수한 재목을 잘못 다듬은 결과인가? 워낙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현 사회풍토에서 또 하나의 변명을 만들어 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얼마 안되는 나의 교직경험으로 관찰한 바로는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 고등학교에서와는 달리 다음의 3가지를 망각하는 것같다.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오는 순간 첫째로 잊은 것은 시간의 소중함이다. 4당5락이라며 잠도 안자고 일 분이라도 헛되이 놓칠까 지하철의 어두운 형광등 아래서도 책을 펴들던 그 극성은 필요가 없어졌다손 치더라도 그저 짧기만한 4년간의 시간을 그리 무신경하게 보내는지. 시간은 쏜 화살과 같아 되돌릴 수 없고 빨리 지나갈 뿐인데, 강의실과 도서관보다 당구장과 술집 그리고 어두컴컴한 카페에서 소일없이 방황하며 낭비되는 젊음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한정된 시한을 갖고있는 젊음이라는 묘약은 헛되이 쓰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다. 둘째로 잊는 것은 학업에의 열의다. 고3때 죽도록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대학에 들어와 즐기는 그 해방감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대학은 진리 탐구의 장이며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곳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필요로하는 손색없는 전문인을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인 곳이다. 간단히 말해서 억척스레 공부하여 쓸모있는 재목이 되는 곳이다. 열심히 가르쳐 보려해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따라오는 학생들을 보면 그저 얄미울 따름이다. 세째로 어찌보면 현재의 대학을 이 모양으로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는 상식적인 예절의 망각이다. 각 개인으로 보면 상냥하고 순수한 학생이지만 일단 집단화가 되면 그들의 몰상식적 예절은 극에 이른다. 조용해야 할 수업중인 강의실을 향해 대형 스피커를 통한 고성방가의 폭력을 행사하고, 정숙해야할 교수연구실 복도를 하얀 운동복에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채 2열종대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그들의 이중적 모습을 보면 당혹감에 앞서 전율감을 갖는다. 도데체, 상식과 지성을 지닌 대학인으로서 이런 집단적 몰상식적 무례에 무감각할 수 있는 것일까?

올해 경희학원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앞서 말한 시간소비형, 학업무심형, 그리고 예절지양형의 바람직하지 못한 대학인으로 변화되리라 믿고 싶지 않다. 이제는 대학에 더 이상의 혼돈과 방임이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학생들은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 전문인으로서 어서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

자 92학번 신입생 여러분! 우리 새롭게일어납시다. 참다운 이상과 포부를 지닌,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건강한 대학생이 되도록 어서 일어서 봅시다, 신입생으로.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은 시간 소비형, 학업 무심형 그리고 예절 지양형의 바람직하지 못한 대학인이 되지 않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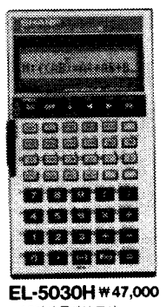
박 광 헌
〈공대교수·원자력공학〉

세계인의 상표 SHA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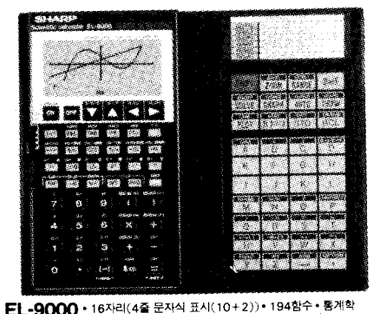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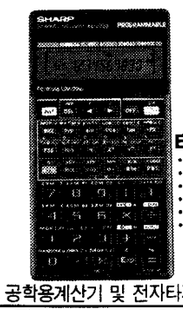
공학 계산기의 대명사—
샤프공학용계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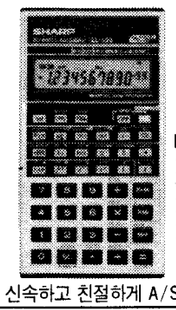
읽기 쉬운 24자리 문자식 표기 계산과 99개 공식메모리
EL-5150 ₩69,300
• 24자리 문자식표기(10+2) • 15괄호 계산 • 104함수 • 논리연산 • 99개 공식메모리 • 정수메모리 26개 • 통계학 • 2, 8, 16진수변환 • 프로그램 1,454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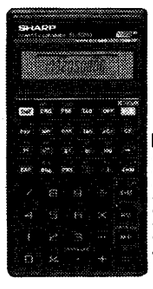

풍부한 99개 공식메모리
EL-5030H ₩47,000
• 16자리 문자식 표시 • 144함수 • 통계학 • 2, 8, 16 진수변환 • 논리연산 • 최종 정답호출 • 정수메모리 26개 • 프로그램 1,421 STEP • 99개 공식메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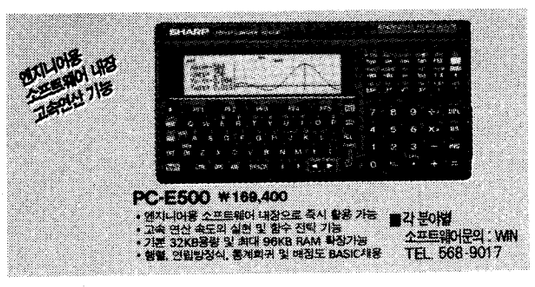
2라인의 시원한 화면으로 공식과 해답을 동시확인
EL-512SH ₩38,000
• 2LINE DIGHT 상 : 12자리 문자식 표시 하 : (10+2) • 127함수 • 통계학 • 2, 8, 16 진수변환 • 정수메모리 13개 • 논리연산 • 최종정답호출 • 프로그램 256 STEP • 4개 공식메모리


한걸음 앞선 초강력 공학용 계산기 대수식에 따른 자동그래픽
EL-9000 ₩72,500
• 16자리(4줄 문자식 표시(10+2)) • 194함수 • 통계학 • 프로그램 용량 5,120 STEP • 정수메모리 26개 • 메모리 호출 • 최종정답 호출 • 도, 분, 초 십진각도 변환 • 좌표변환 • 쌍곡선 함수 • 역쌍곡선 함수 • 순열, 조합 • 절대값, 정수, 소수의 수식 • 무작위 변수 • 수정기능 • 논리식 ●2, 8, 16진수계산 ●지수표시부 • 99개 공식메모리 • 괄호계산 • 논리연산
• EL-9000용 프린터(CE-50P) ₩125,000
• EL-9000용 데이타 교환케이블(CE-300L) ₩19,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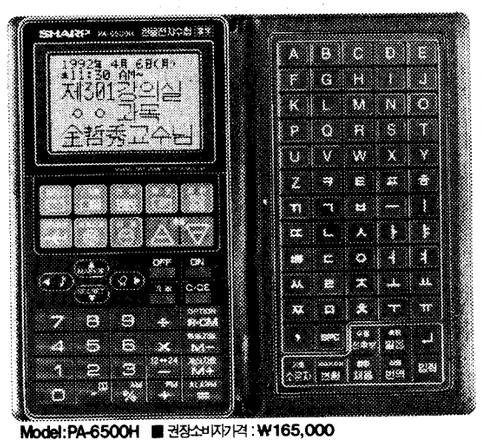

함수계산 도, 분, 초 각도변환
EL-5020 ₩33,000
• DIGHT : (10+2) • 함수계산 • 도, 분, 초 각도변환 • 통계계산 • 좌표변환 • 논리연산 • 대수식 모존 계산 • 적분계산 • MDF(수정기능) • 2, 8, 10, 16 진수변환


독특한 복소수 계산
EL-556 ₩23,500
• DIGHT : (10+2) • 112함수 • 통계학 • 2, 8, 16 진수변환 • 복소수 계산(CPLX) • 3변수 1차방정식 • 도, 분, 초 계산 (DMS) • 논리연산 • 수정기능(MDF) • 무작위 변수계산(RND)


순열조합과 통계기능
EL-509D ₩17,000
• DIGHT : (10+2) • 147함수 • 도, 분, 초 각도변환 • 쌍곡선 함수 • 수정기능 • 순열조합 • 통계기능 • 역쌍곡선함수 • 좌표변환 • 무작위 변수


엔지니어용 소프트웨어 내장 고속연산 기능
PC-E500 ₩169,400
• 엔지니어용 소프트웨어 내장으로 즉시 활용 가능 • 고속 연산 속도의 실현 및 함수 진릭 기능 • 기본 32KB용량 및 최대 96KB RAM 확장가능 • 행렬, 연립방정식, 통계회귀 및 매정도 BASIC채용
■각 분야별 소프트웨어문의 : WIN TEL. 568-9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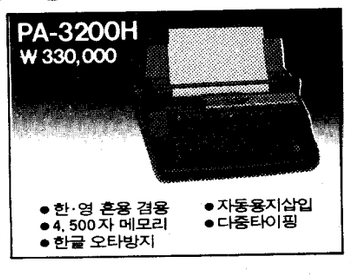
강의실에서, 차안에서,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편리한
샤프 한글 漢字 전자수첩


Model:PA-6500H ■ 권장소비자가격 : ₩165,000
■국내 유일의 한자(漢字 : 4,888字)가 내장된 편리한 수첩
■710명분의 전화번호 입력기능
■생활정보 기록 및 저장할 수 있는 메모기능
■중요스케줄 및 스케줄 알람기능
■199년분의 캘린더 내장
■영어회화 853문장 수록
■국내 및 세계 120개 주요도시 시각화면
■정보 비밀(암호) 번호 기능
■수십억 단위의 계산 기능

다양한 Option
■PA-LINKER ₩88,000 : 전자수첩과 IBM PC와의 데이타 교환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Option기능
■CE-50P ₩125,000 : 전자수첩의 각종 데이타를 인쇄된 문자로 보관할 수 있는 프린터 기능
■CE-300L ₩19,800 : 전자수첩과 전자수첩의 상호 데이타 교환이 가능한 통신 케이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샤프전자타자기

PA-3020H ₩242,000
● 한·영 혼용 겸용 ● 1라인 자동 수정 ● 4,500자 메모리 ● 삼중타이핑 ● 타력조정 2단


PA-3200H ₩330,000
● 한·영 혼용 겸용 ● 자동용지삽입 ● 4,500자 메모리 ● 다중타이핑 ● 한글 오타방지

※ 샤프 공학용계산기 및 전자타자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친절하게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판매대리점 및 A/S센터■
■서울 : (주)삼신사무기 777-4741~2
샤프OA 757-6278
용산사무기 718-3190~1
남대문계산기센타 778-0918
청계샤프 274-2480
샤프비전 719-8144~5
동한전자 678-7311~3
샤프전자타운 534-8812~4
■인천 : 인천샤프 424-0665·435-0865
■수원 : 수원샤프 44-3030
■청주 : 영진사 55-5785
■평택 : 평택샤프 54-6040
■천안 : 천안샤프 551-4226
■대전 : 창신문구센터 255-7681
■춘천 : (자)한일기계 52-6627~9
■원주 : 동아사무기 42-6864
■강릉 : 동아사무기 43-3652
■전주 : 신도OA상사 88-9666
■광주 : 삼성종합사무기 222-0812
■여수 : 현대상사 62-1221
■제주 : 제주샤프 51-2119
■대구 : 경북사무기 255-1523
(주)샤프랜드 351-0607~9
■마산 : 코리아 데이타 48-0125
■부산 : (주)신도상사 642-1321, 462-1001
코리아 데이타 246-1425~6
삼성전자시장
■시청지하상가 : 757-6279
■동방플라자 : 775-1234 (교)511
■을지로 : 756-2945~6
■동교동 : 333-9183~4
■미아리 신세계 : 984-1234 (교)467
■영등포로타리 : 678-7311
■영등포 당산동 : 678-1141
■용산전자랜드 : 719-8144
■용산전자상가 : 718-3190
■강남고속터미날 : 534-8813~4
OA 산업의 기수
샤프전자산업(주)